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6월 13일(금)
--(음력 5월 18일)--
Пятница
13 июня 2025 г.
№ 23 (1214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 국경일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주권에 대한 선언이 채택된 날로서 이 선언문은 1990년 6월 12일에 승인되었다. 다음해부터 이날은 공식적인 국경일이 되었고, 이후 '러시아의 날'로 명명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직행 철도 6월 17일부터 재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철도를 2025년 6월 17일부터 러시아가 직행 철도로 재개하는 가운데 열차는 평양-모스크바, 평양-하바롭스크 두 개의 노선으로 운행한다고 러시아 철도청이 전했다. 환승 없이 평양과 모스크바 구간 직행열차는 한 달에 2회(소요시간 8일) 승객을 운송할 예정이다. 평양에서는 매일 3일과 17일에 출발해 모스크바에 매일 11일과 25일에 도착하게 되며, 모스크바에서는 매일 12일과 26일에 출발해 평양에 매일 20일과 4일에 도착한다. 평양과 하바롭스크 구간 직행열차는 매일 1회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2일이다. 하바롭스크행 평양발 열차는 매일 19일에 출발해 하바롭스크에 매일 21일에 도착하고, 하바롭스크발 평양행 직행열차는 매일 21일에 출발해 평양에 매일 23일에 도착한다.

사할린의 관광 잠재력, 모스크바 <여행하라!> 포럼에서 발표

6월 10일(화)부터 15일(일)까지 <여행하라!> 관광 포럼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광과 숙박>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30개 국가에서 오는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러시아와 전 세계의 독특한 관광지를 찾기 위해 방문할 예정으로 활동교실과 축제, 문화행사, 미식 체험 등이 마련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부스에서는 누구나 사할린의 유명 관광코스과 지역의 탁월한 주요 특성과 사할린 섬들에서 휴식의 기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생태 및 산업 관광에서부터 미식 및 애국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관광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여기서 하루가 시작된다> 국민코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은 사할린주의 중요한 명소 코스를 끼고 있고, 풍성하고, 찬란하며 독창적인 여정을 제공한다.

사할린 학교, 우수 연극 및 음악 기획 발표

사할린주에는 140개의 학교 극장이 설립되어 3천700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교육부가 조성한 창의적인 교사들과 함께 하는 전략적 교육 및 토론 일지에서 총결을 마무리했다. 교육 및 토론 일정의 일환으로 우수한 학교 연극과 음악 기획들이 발표되었다.

주내 약 90%의 학교들이 교내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할린주 내에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진, 언론, IT(정보통신), 영상 게임, 미술공작, 연극예술, 코메디 장르, 실용 및 장식미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교사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임은 지역 '교사들을 위한 창조산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국경일은 우리 국민의 통합과 단결이 구현된 날입니다.

지금의 우리 러시아는 강력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 국가를 건설하고, 강화하고, 수호했던 선조들의 업적을 기억하여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계승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러시아 동부의 굳건한 전초기지로서 여기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첨단 생산품이 만들어지며, 도시와 마을들에서 주택단지들이 개선되고, 스포츠와 문화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과학과 예술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모성애 속에 행복을 갖길 원하는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군사작전지역의 장병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의 러시아를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에게 행복과 강건함, 행운, 사랑, 번영을 기원하고, 또한 조국의 안녕을 위한 후방 노동전선에서 지속적인 여러분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사할린주, 사회적 자본사업 표준 시행을 위한 시범지역 돼

이에 대해 전략주도청의 스웨틀라나 추프셰와 청장과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양자 회담에서 논의했다. 전략주도청의 청장은 사회적 자본의 표준 승인에 대한 시범지역으로서 사할린주도 시작하길 제안했다. 이로써 사회적 책임과 생활의 안정성을 통해 사업개발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적인 평가와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자본사업의 규범(표준규정)에 대한' 정부의 법안 기획이 현재 승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표준은 사회적 복지상태와 러시아의 국가적 목적을 위한 기업의 기여도 평가를 위해 특별한 지표와 비재정적 보고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규정은 국가지원 획득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기업의 기여도 평가는 전체보고와 핵심적 수치를 통해 이뤄지며, '사회적 자본'과 다른 공공기관이 결과를 심사한다.

스웨틀라나 추프셰와 청장은 "사할린주에 사회적 자본의 표준규정 도입은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이는 기업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시범 운영으로 지역 생활의 질과 투자유치를 향상시키는 구조를 시험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이러한 표준규정을 단순한 보고만 아니라 국가 목표의 일환으로서 생활 안정적 성장의 효율적인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삼각협정을 체결한 후 우리는 공동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위해 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전략주도청과 사할린 지역과의 공동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인 '행복한 모성' 기획 시행을 논의했다. 이 기획의 목표는 여성이 가정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사할린 지역은 이 분야에서 독특하게 실제적인 작업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현상이 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예전에 여성은 자녀와 사회적 진출 중에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진출, 집, 가정'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우리는 수준 높은 해결책을 찾아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곧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곧 마무리될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박물관 업무에 20년을 바친 첸 타치아나: 어린 적부터 역사와 박물관을 좋아해

이르쿠츠크, 카흐타, 유즈노사할린스크 - '포베다(승리)'전쟁기념박물관단지 안내(견학)과 과장 타치아나 문구노브나 첸(정)에게 박물관은 그녀의 인생의 도시이고, 인생이 박물관과 연결돼 있다.

타치아나는 이르쿠츠크에서 46년 전에 태어났다. 부모님은 그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 아버지는 사할린 한인 2세, 어머니는 자바이칼리에 고신교도 가족 출신의 러시아인이다. 아버지가 이르쿠츠크 공과대학 3학년일 때 결혼하여 슬하에 딸인 타치아나를 낳았고 대학을 졸업 후 부모님은 헤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카흐타(부랴티아 공화국의 한 도시)로 돌아갔다. 바로 이곳에서 타치아나의 박물관 인생도 시작됐다. 2000년에 그녀는 가장 오래된 오브루체브 명칭 카흐타 향토박물관에 초급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실 그곳은 그가 자란 곳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살던 집이 박물관 분관 중 하나였다. 그때 아주 자주, 꾸준히 찾아가는 곳이 박물관이었고, 그는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도 알고 있었

다. 그리고 지역, 고향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창고 냄새 (나프탈린)가 배인 박물관의 향기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라고 타치아나는 고백한다. 이 어린 시절의 향기와 향토

의 역사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진로를 결정지은 것 같다. 동시베리아 국립문화예술 아카데미(사회문화 활동 전공)를 졸업한 타치아나에게 학교 교사로 임용 제안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직업으로서 박물관을 선택했다. 2005년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 했다. 문화회관으로 갈지? 박물관으로 갈지? 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주 미술박물관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9년간 안내와 상담 전문가(가이드)로 근무하다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료센터에 취직했는데 1년 반 후에 그 곳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타임으로 견학



안내자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후는 향토박물관의 정규 직원이 되었다.

2019년에 '개인적인 위기'로 향토박물관을 그만두면서 '더는 박물관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타치아나는 박물관 일에 대한 사랑을 끝내 떨치지 못하고 '포베다'전쟁기념박물관 단지에서 들어온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부터 역사 기념박물관의 안내(견학)과 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근무해온 20년 동안 무수한 경험을 쌓은 타치아나는 "박물관 일은 이제 제 피에 흐릅니다."라고 말한다. 현재 그녀는 경험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아는 박물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젊은 동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이끌고, 이상적인 관광 가이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라고 말한다.

박물관 활동으로 여러 행사와 활동교실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이에 그녀가 어린시절에 음악학교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한 것도 도움이 되었

다고 한다. 현재 그녀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기타, 돌라, 발라라이카, 포르테피아노다. 그래서 미술박물관에서 웰키 우스투그 박물관에서 사할린 전시 개막식에서 그녀는 사할린 북방소수민족 님흐 악기 자칸타를 연주한 적도 있다. 또한 다양한 형겼인 형도 잘 만들 수 있어서 형겼인형 만들기 활동교실도 여러 번 해왔다.

현재 그녀가 근무하는 곳인 '승리' 박물관은 군사역사 박물관으로, 그녀의 사명은 기억을 보존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타치아나는 동료들과 함께 중요한 기획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들 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강연, 수업, 활동교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선도적 어린이·청소년 군사기초훈련 기획이다. 이는 관람, 강의 및 실습을 결합한 문화행사의 일환이다. 또 다른 성공적인 기획은 청소년들을 위한 '아트 레토리(아트 강연)' '푸쉬킨 카드'로 진행되는 예술·영화·퀴즈를 통해 제2차 세계 대전과 위대한 조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녀는 얼마전에 아바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도 '포베다'전쟁기

념박물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기타 행사들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사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이 한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어도 한국어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민족의 문화와 예술에는 관심이 많다고 고백했다. 특히 한국 무용을 좋아해 '에트노스'학교의 한국무용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무한 춤에 심취해 있다. 그래서 딸도 '에트노스'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가족적으로는 병드신 부모님을 돌아가시기까지 모시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2023년에는 어머니를 사할린으로 모시고 와서 돌보고 있다.

그녀는 평화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중시한다. 그녀는 "제 걸모습은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온 몸을 떨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두려움과 담대함을 함께 가지고 걷는 걸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고쳐 세우며 곳곳이 가길 응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푸쉬킨의 시와 동화를 선호해

MTC 디지털 생태계와 '스트로키(한 문장)' 도서서비스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의 탄생일을 맞아 사할린 주민들의 독서 선호도를 분석했다.

사할린 주민들의 독서 선호도는 극동지역의 주민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푸쉬킨의 작품들은 전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사할린에서 가장 많이 읽힌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의 작품은 '19세기 러시아 생활의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진 <예브게니 오네긴> 운문소설이고, 2위는 역사소설로 인기 있는 '대위의 딸', 3위는 신비적 요소를 지닌, 인기 높은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이다. 푸쉬킨의 작품 상위 5위 안에는 '살탄왕 이야기'와 '150편의 명사'가 포함돼 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 주민의 취향은 대체로 극동지역의 주민들과 일치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캄차트카 독자들이 선호하는 상위 작품에는 '작은 비극'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올라왔고, 하바롭스크 독자들 사이에서는 '두브롭스키'가 인기가 높았다.

'스트로키' 서비스 분석가들은 푸쉬킨의 작품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지적하며,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과 '스페이드의 여왕'은 35세 - 44세의 연령대 독자들이 선호했고, '청동 기사'는 55세 이상의 독자들이 선호했으며, '벨킨 이야기'는 18세 - 24세 사이의 독자들이 많이 읽었다. 동시에 '예브게니 오네긴'과 '대위의 딸'은 여성 독자들이 더 많이 읽었고, '스페이드의 여왕'과 '청동 기사'는 남성들이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Сахалинцы предпочитают поэзию и сказки Пушкина

Цифровая экосистема МТС и книжный сервис «Строки»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Пушкин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читательские предпочте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кусы островитян немног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оседей, а произведения Пушкина популярны у читателей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Самым читаем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Пушк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оказался роман в стихах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известный как «энциклопедия русской жизни 19 век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а замкнула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повесть с мистическими элементами «Пиковая дама». Также в топ-5 произведений Пушкина вошли «Сказка о царе Салтане» и «150 извест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В целом, вкусы сахалинцев во многом совпадают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соседями, но есть и отличия. Так, у камчатских читателей в топе также оказалась «маленькая трагедия» «Моцарт и Сальери», а у хабаровчан — роман «Дубровский».

Аналитики сервиса «Строки» отметили, что произведения Пушкина популярны у люд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и пола. Так, роман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и повесть «Пиковая дама» чаще всего предпочитают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35-44 лет. «Медный всадник» пришелся по вкусу поколению старше 55 лет. А у молодежи 18-24 лет в лидерах оказались «Повести Белкина». При этом, «Евгения Онегина» и «Капитанскую дочку» чаще читают женщины, а «Пиковую даму» и «Медного всадника» — мужчины.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높이 평가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2호 일반 중등학교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기초학교' 지위를 얻음으로써 연방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 발표와 지위 수여식이 러시아 국립 농업대학인 모스크바 티미라제브 농업 아카데미의 농업교육 및 산업 훈련에 따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확대회의에서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가 전문적인 농업 분야 개발을 위해 다년간 적극적으로 작업한 덕에 가능했다. 현재 러시아 학교들에서 농업학과의 연결망 구축을 위한 기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식량안보 기술지원> 국민기획 속 <농산업단지의 인력>연방 기획의 한 부분이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이 기획의 실행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32호 학교는 농업 분야를 오래 전부터 생산적으로 발전시켜온 가운데 '니콜라이 이와노비치 와일로브' 러시아 식물 유전자원 연구소 및 사할린 농산업 과학연구소, 사할린 국립대와 같이 권위있는 과학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의 독특한 '바빌론의 정원'과 온실농장을 통해 식물 재배 분야에서 학생들이 교사들과 연구가들의 지도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활동에 참여하고, 식물의 유전적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조기 진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마트료슈카'유치원과 함께 <함께 자라자: 씨앗에서부터 직업으로>라는 독특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장 어린시절부터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조성하면서 농업의 기초를 서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생태계는 장래 사할린 지역의 농산업 분야에 열정적인 전문가들과 청년들을 확보하고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Школ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в РАН

Средня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школа № 32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билась высокого признани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ей присвоен статус «Базовой школы РАН». Защита проекта 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присвоение статуса состоялись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РАН по агрообразованию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у воспитанию в стенах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гра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МСХА имени К. А. Тимирязева в Москве.

Это достижени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многолетней активной работе школы по развитию профильного аграр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егодня проект по развитию сети агроклассов в школах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адры в АП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 его реализаци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леди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Школа № 32 давно и плодотворно развивает аграр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ладило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такими авторитетными научными центрами, как Все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ген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растений имени Н. И. Вавил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 базе школы действует собственное тепличное хозяйство и уникальный «Вавиловский огород», где школьни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едагогов и ученых проводят настоящ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им не просто изучать теорию, но и погружаться в реальную нау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сваи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сохранению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ген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расте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школе уделяется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Совместно с детским садом «Матрешка» реализуется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Растем вместе: от семечка до профессии». В рамках этого проекта дет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обучают друг друга основам агрономии, формируя устойчивый интерес к аграрной сфере с самых ранних лет. Так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экосистема призвана в будущем обеспечить приток молодых и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егиона.

스레텐스키 수도원 합창단 공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6월 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 대강당에서 승전 8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스투텐스키 수도원 합창단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순회 합창공연은 3월부터 시작해 24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할린 지역은 가장 동쪽 순회 공연지가 되었다. 스투텐스키 수도원 합창단은 세계 문화적으로 더할 나위없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자체 독특한 합창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8면에 계속)

200여명이 참가한 머위볶음 체험교실로 '야생식물'축제 마무리

지난 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례 미식 축제 '디코로스(식용 야생식물)'의 마지막 행사로 '머위 요리교실'이 열렸다. 축제 일환으로 동의나물(칼루즈니차)과 고사리에 대한 체험교실은 이미 5월에 진행되었다.

축제는 짧은 공연으로 막을 올렸는데,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전통한민족타악기 팀(단장 송천석)의 신나는 북공연을 시작으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러시아 민속 앙상블 '즐라티차'(지도교사 타치야나 로고와)의 화려한 춤과 노래, 태권도 스포츠 클럽 '토르나도'의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 한인문화센터의 '아리랑' 무용단(단장 박영자) 우아한 부채춤의 공연으로 '디코로스'는 절정에 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부시장 드미트리 하이브리예브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 축제가 사할린 한인들의 요리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대에서 머위를 조리하고 있는 요리 경험이 많은 한정부 선생님님과 20대의 림 다니일 요리 초보자의 설명에 따라 요리체험교실 참가자 모두가 머위볶음을 만들어보았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한인 여성분들이 요리교실 참가자들을 도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밥과 머위볶음과 머위 무침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근한 분위기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이번 행사는 '디코로스'축제가 단순한 미식축제를 넘어 사할린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취재: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배순민)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스크립니고브 블라디슬라브라고 합니다. 저는 20살입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영어 및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2학년생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좋아해서 영어는 8년 정도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또한 한식을 자주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재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언어를 안다면 어디든 집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수원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제가 언어의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유학생들에게 한국 속담과 격언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과 교육이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노동과 교육과 관련된 속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속담은 학습과 자기계발 과정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속담은: «공부는 늘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고 합니다.



«일 다하고 죽은 무덤 없다». 학생들은 그 속담이 시작된 일의 완성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일을 끝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수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모든 주요 수능시험이 오전 9시경에 시작해서 오후 6시경에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과목은 영어, 수학, 역사 그리고 선택 과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은 교과서와 원고를 놓고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는 유학생들과 매우 재미있었고, 개방적이었으며, 사교적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대학교 교육학 및 언어학 대학 2학년 스크립니고브 블라디슬라브

사할린주, 사회적 자본사업 표준 시행을 위한 시범지역 돼

(1편의 계속)

나는 우리 지역의 400개 기업의 대표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차례의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기업 대표들은 완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사업상 이러한 지원을 보기는 우리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현재 여성이 출산을 준비하며, 직업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그런 여성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고, 편안한 여건을 제공하는데

바로 재택근무, 유연한 근무시간, 추가 의료 서비스, 아이 돌봄서비스 등이다. 지금 우리는 의무규정으로서 지원조치를 포함한 '단체 노동협약' 표준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전라주도청과 공동으로 이 방면에서 앞으로 계속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에서는 이미 자녀를 둔 어머니와 미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정보사이트가 하나의 이름으로 개설돼

이곳에서 소식과 행사와 유익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지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연합하여 상호협력 공동체에 참여를 위한 역할을 선택해 등록하길 권한다. 동시에 지역 기업도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참여하는 가운데 8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자녀를 둔 가정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주정부 자료에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낙화 /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춧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단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이 진다면, 제 소유의 꽃이 진다면 전 바람이라도 탓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것도 ‘김앤장’으로다가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꾸리고, ‘바람’을 향해 아주 제대로 강짜를 부릴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길만한 판례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니어도 어쩔 수 없구요. 뭐, 어쨌든 저는 분명하게 외치는 겁니다. “바람이 댔든, 중력이 댔든, 아, 잔말 말고 물어내, 물어내라구!”



일단 한 방 맥이고 보는 거지요. 그래야 속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으니!
바람을 탓하든 중력을 탓하든 뭐가 댔든 ‘탓’한다고 이 세계의 질서는 바뀌진 않겠지요. 진상을 부러 봤자 그때 뿐, 이 세계는 견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탓’을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불평을 늘어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만 같거든요. 이 세계가 참 뭐랄까 굉장히 촘촘한 입자들의 나열에 불과할 지라도, 저는 일단 이단 삼단 따져보고 싶거든요.

조지훈 시인은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셨나 봐요. 이 좁 되면 아예 완전히 다른 종 같습니다. 전전두엽은 있지만, 그것도 어찌면 비슷한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인 거지요. 존경 어린 이런 철학적 사색을 음미하며, 저는 참 많이도 배웁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멋져 부러, 멋져부린당께라우!”

(서울에서 허진원)

<나는 행복한 엄마다> 가정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6월 1일(일) 가까운 시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나는 행복한 엄마다>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어머니가 되려는 여성과 이미 임신 중인 여성, 출산휴가 중인 여성, 아이 돌봄 일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조성되었다.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행사 중 하나는 시내 유명 요식업체의 요리 및 조리사들이 미래의 어머니들을 위해 개발한 특별메뉴 요리 시식이었다. 축제 방문객들은 <9월 - 9달> 흥미진진한 도전게임에 참가도 하며, 미래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식기관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지, 어떻게 임신을 준비해야 하는지, 임신 중 중요한 기간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편안한 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행복한 모성> 기획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좀더 자세히 청년 가정을 위한 혜택과 사회적 진출과 육아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사할린주 보건부 의료국의 이리나 해가이 부국장은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건강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обралось н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лопуха

7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завершающее событие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Дикоросы" -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лопуха (белокопытник).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ом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подготовившие для гостей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четающую кулинарные традиции и яркие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Ведущие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фестиваля "Дикоросы" и напомнили, что по традици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рове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сбору и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алужницы и папоротника.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лся красоч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оздавших неповторимую атмосферу 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Зажигательные ритм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в исполнении ансамбля "Ханиль" при ККЦ сменились яркими рус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артистов ДНХ «Златица» ДШИ «Этнос», захватывающими показа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от спортсменов-тхэквондистов клуба "Торнадо", а кульминацией стал изыскан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й танец с веерами от коллектива "Ариран" при ККЦ.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к участникам обратились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и отметили значимость фестиваля как площадки для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сохранения кулинарных тради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черкнув его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



са от РООСК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елокопытника. Активисты организации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костюмах помогли участникам, превращая процесс готовки в увлекательный обмен опытом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поколениями и культурами.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дружеской дегустацией,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оценить разнообразие способ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елокопытника и обменя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Тем, кто на своих плечах выносил с поля боя Солдата, посвящается

СЕСТРИЧКА

Который день косила смерть солдата
И падал наземь, словно хлебный колос,
Кто был любим, кто так мечтал когда-то,
И таял в небе еле слышный голос ...

Припев: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Земля огнём объята ...
И ты ползла туда, где рядом жизнь и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Ещё живой, он в двух шагах от дота
Лежал в пыли, сквозь гарь виднелось солнце
Ушла в перёд, спасённая им рота,
А он лежал и видел свет в оконце ...

Припев: Мама! Мама! Мама,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Земля огнём объята ...
И ты ползла опять, забыв про страх и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Он умирал, но ты его, как брата
Тащила, уповая лишь на бога ...
И полверсты, до самого заката,
Казались вам, что вечная дорога

Припев: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среди раненых санбата ...
И ты бежала в ночь, завидев злую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среди раненых санбата ...
И ты бежала в ночь, завидев злую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13.05.2017 г.,

Корея, по дороге н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ТЭХО ЧАН

Новости Телеграм-канала «Коре-сарам»

Лидер крым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имир Ким стал мэром города Феодосии

3 июня 2025 года единогласным решением внеочередной сессии Феодосийского горсовета новым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Феодосии в Крыму избран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Ким.

С 10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Ким исполнял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одного из старейш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Ранее Владимир Ким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имферополя,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Феодосии.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Ким родился 2 августа 1972 года в селе Менделеево Красногвардейского рай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вице-президен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Александра Тен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пер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по айкидо 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прошли перв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айкидо. Это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брали участников из 21 страны, включая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Россия, Япония, Филиппины, Абхазия, Беларусь, Джибути, Египет,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я, Китай, Монголия, Сербия, Шри-Ланка, Индия, Тунис, Камерун, Гана, Азербайджан, Кот-д'Ивуар, Таджикистан и Бразилия.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воевали 12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из 20 возможных и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На этом турнире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Пегас» Белгор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а Тен завоевала два первых (ки-



хон вадза, дзюю вадза (группа)) и одно второе место (дзюю вадза (пар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лександра Тен выиграла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айкидо.

Александр Ни выигр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ушу

С 1 по 7 июня 2025 года в Москве прошёл X юбилей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Московские звезды ушу».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2 стран (Армения, Белоруссия, Китай, Индия, Индонезия,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Танзания, Узбекистан и Россия).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из Китая в турнире участвовали именитые тренеры и мастера ушу, а также 7 команд из различных китайских провинций, включая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КНР по ушу.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оспитанник отделения ушу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 15 города Томска Александр Ни завоевал в различ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4 золотые и 1 серебряную меда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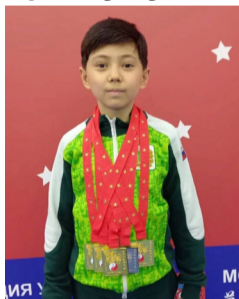
В 2024 году юный томич Александр Ни становился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ёром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о ушу-таолу, бронзовым призёром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о кунфу-традиционному ушу. Он - победи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2024 года по ушу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пятикратный победитель первенства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ушу.

83-летний Александр Цой награжден как самый взрослый участник веломарафона в Адыгее

В столице Адыгеи, в Майкопе прошёл традиционный велопробег,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России и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велосипедиста. Основной 18-километровый маршрут пролегал по улицам Пролетарской и Пионерской города Майкопа. В веломараф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велопробега 83-летний Александр Цой был награждён как самый взрослый участник мероприятия.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Суд Сеула обязал Mitsubishi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бывшему корейскому рабочему

Важное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иметь и серьез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принял в субботу 7 июня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в Сеуле. Он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япон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обязана выплатить 100 млн вон (примерно 73400 долларов) компенсации 107-летнему южнокорейцу Ким Хан Су, ставшему жертвой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1910-1945 гг.

Судебная коллег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жного суда Сеула отменила более раннее решение 2022 года, в котором иск Кима был отклонен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ечение срока давности. В новой инстанции судьи признали, что в вопросах, касающихс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ремен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срок давности должен отсчитываться с момент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от 2018 года. Напомним, именно т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Фемида впервые обязала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Ким подал иск в 2019 году, утверждая, что в 1944 году был насильно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боты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Mitsubishi.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ссылается на Договор 1965 года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по мнению Токио, вопрос компенсаций был окончательно урегулирован. Однако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этот довод давно вызывает критику как юридически и морально несостоятельный.

Mitsubishi,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откажется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выплаты. Кроме тог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может снова обострить и без того непрост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Японии негативно отреагируют на этот судебный вердикт, расценив его как нару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глашений. Это может внов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споры и даже повлиять на предстоящи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фициальный Токио считает, что все вопросы по репарациям и компенсациям были закрыты с заключением 60 лет назад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оговора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говорил по телефону с главой Китая

10 июня состоялс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Ли Чжэ Мён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Это было третье по счёту общ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с главой зарубеж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ле телефонных раз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Сигэру Исибой.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просил Китай продолжать и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и Цзиньпин ответил, что содействие миру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твечает общим интересам как РК, так и Китая. Ли Чжэ Мён пригласил китайского лидер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 РК в ноябре.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еул и Пекин будут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экономику, безопасность, культуру и гуманитарные обмены на основе духа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и равенства. Си Цзиньпин предложил вывес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овместно защищать многосторонность и свободную торговлю.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тся с лидера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 12–13 июн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совещан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 лидер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Ли Чжэ Мён планируе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нени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о тек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до участия в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По информации источников,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главы пяти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корпораций - Samsung Group, Hyundai Motor Group, SK Group, LG Group и Lotte Group,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шести ключе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ключая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ую палату, Федерацию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Конфедерацию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Ассоциацию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совещании будут обсуждены текущие внутренние и внешние условия, меры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инвестиций, активизации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оживлению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стратег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официт текущего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РК составил в апреле 5,7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официт текущего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РК составил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5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стаётся профицитным 24 месяца подряд с мая 2023 года, но сумма профицита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мартом, когда она составляла 9 млрд 140 млн долларов. Торговый баланс, отражающий разницу между экспортом и импортом товаров, составил 8 млрд 990 млн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вырос на 1,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58 млрд 570 млн долларов. Импорт уменьшился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5,1%, составив 49 млрд 580 млн долларов.

С 10 по 13 июня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Seoul Food 2025

С 10 по 13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Иль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ходит крупнейшая в Р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выставка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Seoul Food 2025.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43-й раз, и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содействию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KINTEX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очная компания Informa Markets. Выставка охватывает весь спектр пищевой индустрии — 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переработки — и служит ведущей платформой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перед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этом году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ена экспозиц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включая пищевое и упаково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анитарные установки, а также кухонную технику для отелей,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формат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зволяющего посетителям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бразцами,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месте.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здравил авторов мюзикла «Maybe Happy Ending» с успех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здравил творческую команду оригин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мюзикла «Maybe Happy Ending» (Может быть, счастливый конец) с получением шести наград престижн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театральной премии Tony Award. Он пообещал увели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 сообщении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Facebook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Сегодня культурное сообщество нашей страны переживает ещё один особенный момент.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создании мюзикла. Maybe Happy Ending достоин высшей награды «Лучший мюзикл». Остальные награды —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Лучшая оригинальная музыка», «Лучший дизайн сцен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Лучшая режиссура» и «Лучшая мужская роль в мюзикле». Tony Award основана в 1947 году. Она считается театральным эквивалент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го «Оскара», музыкальной «Грэмми» и телевизионной «Эмми».

RKI

Ли Чжэ Мён возвращает президентск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в Чхонвадэ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принял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возвращении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Чхонвадэ ("Голубой дом") - традиционной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еула. Об этом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переезда будет создано специальное времен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Чхонвадэ.

Напомним, ч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президенты Кореи находились именно в Чхонвадэ, но в 2022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ереместиться прямо в центр Сеула, потеснив находившихся там военных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Этот шаг вызвал много споров, так как создавал неудобство для транспорта и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вопросы к обеспечению надлежащего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Чхонвадэ же,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хотя и недалеко от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Сеула, но немного в стороне,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в этом плане. Юн же объяснял свой шаг желанием быть ближе к народу и чаще общаться с людьми, но в итоге был смещен с поста досроч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импичмента за попытку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воим шагом вернуться в прежнюю резиденцию Ли Чжэ Мён подтверждает обещание, данное еще во время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использовать зд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районе Ёнсан временно, а затем вернуться в Чхонвадэ, как только завершится ремонт.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ов, ремонт и обновление комплекса займут два-три месяца.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президент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официальную резиденцию в Ханнам-доне (район Ёнсан), где ранее проживал экс-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Вскоре после инаугурации Ли заявил, что "в Чхонвадэ все равно придется вернуться - это наиболее логичный и практичный выбор".

Вслед за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Ли начались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Чхонвадэ нача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огулочных дорожек и других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с 4 июня закрыт доступ к туристическому маршруту длиной 1,3 км от заднего входа Чхильгун до павильона Пэкхакчжон и пресс-центра Чхунчхугван. Остальные зоны комплекса, включая главный корпус и павильон для приема гостей, пока остаются открытыми для посещени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как тольк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реш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в Чхонвадэ резко возрос поток туристов - люди хотят напоследок посмотреть комплекс, пока доступ в него опять не будет закрыт.

Интересно,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отрицают прямую связь этих работ с президентским переезд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Чхонвадэ заявили, что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ланировалась еще до выборов, и д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прием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должится по графику.

Возвращение в Чхонвадэ, по мнению наблюдателей, имеет как символическое, так и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омплекс хорошо охраняется, обладает развит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имеет статус официальной резиденции с 1948 года. К тому же, отказ от офисов в Ёнсане, ассоциирующихся с импичментом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а и объявлением и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ает новому лидеру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черкнуть разрыв с прошл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Ли Чжэ Мён все же вернется к своему предвыборному обещанию перенести президентск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в город Сечжон - для этого потребуютс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оправки и согласие парламента. Однако пока очевидно одно: Чхонвадэ вновь станови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м сердцем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осын. Как корё-сарам находят своё место в Ко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Пхёнтак. Район с названием Посын, мало известный даже большинству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Но именно здесь, на юг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живёт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корё-сарам, приехавших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Украины и других стран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ни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в надежде на лучшее будущее, но столкнулись с тем, что их родина — это совсем не та Корея, которую они знали по книгам и семейным рассказам.

7 июня 2025 года в этом районе прошла необычная встреча. Более 40 человек — лидеры отделени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тивисты,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власти —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чтобы поговорить о том, как живёт местное корей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Главной темой стала добровольная народная дружина, созданная силами самих жителей.

Возвращение, которое не всегда встречают с объятиями

Многие из тех, кто живёт в Посыне, переехали в Корею семьями. У кого-то здесь уже родились дети, и поскольку родители работают, бабушки помогают с детьми, кто-то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привыкать к языку и порядкам. Но почти все признают: жизнь здесь далека от того, чтобы быть простой. Внешне корё-сарам ничем не отличаются от местных, но язык, акцент, документы — всё это отделяет их от ост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Пожилым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они не могут вступить в местные клубы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знают, где искать помощь, и зачастую оказываются замкнутыми в пределах своей квартиры. Молодёжь учится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где не всегда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своими». Многие работают на заводах,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на стройках. И хотя трудятся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 обществе их по-прежнему называют "иностранцами".

Дружина как способ быть полезными

В 2022 году жители Посына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родную дружину — доброво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дежурствами в районе: утром — возле школ, вечером — на улицах. В дружину входят 47 человек из 9 стран. Среди них — в основном бабушки, так как молодые работают и не всегда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хотя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уже хорошо говорят по-корейски и помогают, когд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ногих это стало первым опы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 с полици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соседями.

Пак Джуну, глава мест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кооператива, который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л создание дружины, на

встрече отметил:

"Корё-сарам живут здесь, но часто не знают, как быть полезными. Дружин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охрана. Это способ почувствовать, что ты не просто приехал в Корею, 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десь живёшь".

Одним из тех, кто стоял у истоков дружины вместе с Пак Джуну, стал Тен Алексей — активист, родом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Благодаря свободному владению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он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налаживании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жду корё-сарам и корейскими структурами: помогает с переводами, объясняет сложные правила, сопровождает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учреждения. Его участие стало настоящей опорой для многих семей.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ботает.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за год работы дружины уровень улич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в районе снизился на 80%. Дружинники получили 11 официальных благодарностей, а главное — уважение от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нтейнер,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база дружины, днём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луб для пожилых, вечером — в клас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 ночью — в пост дежурных. Там собираются, чтобы поговорить, попить чай, послушать, как кто-то споёт любимую песню из молодости. На недавней встрече бабушки сами устроили не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перед началом обсуждений — просто, по-домашнему.

Жизнь в новом ритме

Этот район —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корё-сарам выстраивают свою жизнь заново. Не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или формальные курсы адаптации, а через повседневную заботу друг о друге. Через то,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своими руками.

В Корею у корё-сарам часто нет гражданства, они не могут голосовать, иногда испытывают дискриминацию. Но здесь, в Посыне, они уже не "гости" и не "временные". Это их улицы, их соседи, их вечерние дежурства и их песни на праздниках. Это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возвращения, которого никто не ждал, и жизни, которую надо строить с нуля. Но именно в таких местах видно, как по кирпичику создаётся новая реальность: где корё-сарам — это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я, но и настоящее. Живое, сложное, но своё.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рибная ферма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ивается благодаря господдержке

Семей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занимается выращиванием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го штамма вешенки. Семья Хлебодаровых прошл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урс «Азбу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и разработала подробный бизнес-план,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своение новых рынков.

— В отличие от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где используется материковая технология, мы работаем на сахалинском сырье. Там чаще используют солому, подсолнечник — доступные и недорогие материалы. У нас ситуация иная: у нас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солома и сено, ими занимается только один фермер на Сахалине. Кроме того, мы частично используем древесину и сено. При подборе комбинаций сырья мы получили обнадеживающие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фермы Юрий Хлебода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едприятие выпускает около 700 килограммов белковой продукции в месяц, но обороты в компании рассчитано 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до 20 тонн. В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ланах компании —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3-5 тонн ежемесячно и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 В процессе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бизнеса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проблем 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обратились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и прошли обучающий курс, который помог нам структурировать процессы и успешно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тие, — рассказала лаборант грибной фермы София Хлебодарова.

Курс «Азбу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помогает превратить идею в полноценный проект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необходимые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для успешного старт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ни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экспертов проверяют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ь своих бизнес-идей, осваивают финансов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управление персоналом, основы маркетинга и бухгалтерский учет. По итогам тренинга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олучает сертифика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рохождение обучения, который даёт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ах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и субсидий.

— Недельный курс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збу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стартует 16 июня и организован центром «Мой Бизнес»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андой опытных бизнес-консультантов. Записаться на курс могут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е, так и действующ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желающие развить свои навыки и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для успешного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 поделилась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Любовь Дейнега.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crrp65.ru/events/obuchajushhij-kurs-azbuka-predprinimatelja-2/.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роводят регулярно, следить за ними можно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t.me/calendar65 и на сайте mybusiness65.ru/events/.

Обучение для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т бесплатно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Эффективная и конкурент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контролируе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о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Емельянова 6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8 800 222 0123.

Сахалин станет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реализации Стандар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бизнеса

Речь об этом шла на дву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е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СИ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ветланы Чупшевой и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предложила включить регион в число пилотных по апробации Стандар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Это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развитие бизнеса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через социа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устойчивость. При этом они смогут привлечь к себе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и малый бизнес к иннов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оценки и поддержки.

Напомним, сейчас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Стандар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бизнеса» готовится к утверждению. Стандарт включает форму не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и специальный индекс для оценки вклада компаний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цели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может служить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Оценка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полную отчетность или ключ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а проверку результа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АНО «Общественный капитал» и другие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верификаторы.

— Внедрение Стандар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на Сахалине способно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гиона.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изнание вклада бизнеса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но и ре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успешных компаний. Пилотный статус позволит опробовать механизмы, которые повысят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регионы восприняли этот стандарт не просто как отчетность, а как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мы сможем со-

вместно начать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успеш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отметила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Кроме того,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который стал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совме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региона и АСИ. Цель проекта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успешного совмещения семей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жизни женщин.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уникальных практик в этой сфере.

— Если раньше у женщин был выбор: ребенок или карьера, то теперь с внедрением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Карьера. Дом. Семья» мы получаем качественное решение. Я провел пять семинаров, на которых проговорил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400 предприяти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У нас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кликнулись абсолютно все директора. И это стало для нас даже неожиданным — увидеть в бизнесе такую поддержку. Теперь, если женщина готова рожать и не готова отпускать карьеру, то ей предлагают максимально выгодные, удобные условия: дистанционную работу, гибкий график,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работу няни и прочее. Сейчас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стандартом «коллективного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куда войдут эт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ак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авило. И мы готовы и дальше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вместно с Агентством,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запустили одноиме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программ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й для мам и будущих мам, где доступны нов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лез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ртал предлагает регистрацию с выбором роли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обществе взаимопомощи, объединяя тех, кто нуждается в поддержке, и готовых её оказывать. При этом к программе присоединился даже местный бизнес — в 8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представили специальное меню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ахалина отличились и в конкурсе раст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брендов «Знай наших», который проводят АСИ и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ЭБ.РФ. В 2023 году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17 брендов, из которых 4 стали финалистами — среди них ТЕ(МВ)R, квас «Первый зимний» и бренд морепродуктов Salmonica. В 2024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выросло более чем в семь раз — поступило 124 заявк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анорамный комплекс 601», «Рыбка курильская» и «Адреналин-тур». В третьем сезоне конкурса (приём заявок завершён 1 июня) заявок уже 168, включая проекты «Сахалин такой один», «Сахалин Тревел» и «Сырный дом Сахалин».

Рост активности заметен и в форуме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упило 371 предложение — на 4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256 идей).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56%) касаютс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 всего 208 идей. Сейчас,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иёма заявок на форум 2025 года, идёт этап оценки проектов,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уют более 2,5 тысячи экспертов крауд-платформы. Лучшие идеи войдут в топ перспективных, а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е представят руководству страны на очной части форума в Москве в июл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активистами ОНФ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Общественники озвучили главе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мониторинга обращений граждан.

Активисты прове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автодор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ние отд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лана проехали по основным транспортным артериям. Состояние везде разное. Совершенн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в целом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и Холмск - Невельск. Ее ремонтировали кусочно, несколько лет, тем не менее она отвратительная. Самое обидное, что разваливаются участки, которые сдел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очина продавлена со стороны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орван пятнами верхний слой асфальтного покрытия, — рассказал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Валерий Ерохов.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ситуации с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одрядчик должен устранить дефекты в рамках гарантий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Однако к «работе над ошибками» он еще не при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потребовал срочный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с заказчиком работ —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Алексеем Каверзевым.

— Прямо сейчас мне докладывают, что в районе села Ясноморское — это 5 километров в сторону Холмска от Невельска - дорога, которую ремонтировали, зиму не устояла, там явный брак. Уже июнь, дефекты не устраняются. Я вам ставлю неуд и прослежу за вашими действиями. Если они меня не удовлетворяют, поставлю вопрос о вашем служеб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требовал обозначить конкретные

сроки устранения дефектов на указанном участке и установить строгий контроль за их исполнением. Подрядчик обязался устранить замечания до 15 июня.

— Полностью уйти от грунтовых разрывов на автодороге Холмск - Невельск планируем в 2026 году,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раньше. У нас осталось 17 километров из 50, все участки законтрактрованы,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Общественники также огласили результаты мониторинга доступност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н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ах, отметив, что зафиксировали участки, где не работает ни один оператор.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регион намерен обеспечить непрерывной сотовой связью дорогу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а област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активисты озвучили вопрос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оползневых сходов.

— Это проблема касается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юго-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события: люди по три часа на работу добира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была перекрыта дорога Холмск — Невельск. Хотелось бы услышать, к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таких случаев, — обратился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Алексей Казанцев.

По оцен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шло около 100 селей и 50 оползней. В селевой опасности находятся порядка 90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ползневые явления зачастую происходят во время таяния больших масс снега и залповых ливней.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работа по обновлению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обследованию русел рек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и их последующей расчистке.

—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изошло 4 оползневых схода. В январе у нас было семь метелей. И когда 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был большой водный поток, он сходил с ветками и грязевыми массам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ели в Томар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йоне улицы Лесной.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забивались водопропускные трубы, потому что просто были не рассчитаны на такой объем. В ходе работ по ликвидации мы усиливаем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е сооружения,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Также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лана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ям климата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по оценке проявлений опасных природных воздействий (оползни, лавины)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гося клима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акар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и Невель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ов.

— Если в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опять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выпадение осадков. Н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 затопило, потому что мы вывезли весь снег до того, как он начал таять. Оказывается, это рукотворно. Эта работа должна вестись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Не принимается объяснений, что мы живем в таком климате, и нас всегда будет затапливать и сели будут сходить. Мы не можем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ироду, но превентивную работу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На совещании рассмотрели вопрос о состоянии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ОНФ к губернатор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ее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 Но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после ремонта там, где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стали 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окладываться. И территория опять в ненадлежащем состоянии, — расказала активисты.

Как доложи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устранению дефектов в рамках гарантий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едут и ряд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провест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иновных лиц, допустивших рассинхронизацию работ.

Активисты подняли проблему состояния памятника природы «Дагинские терм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Как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региона Артем Лазарев,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ператору,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их надлежащее содержание и эксплуатацию.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звучили личные об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окажут содействие младшему воспитателю детского сад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олучении льготной ипотеки.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ередали властям 11 обращений от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о каждому случаю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провер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한다

공무원·일반인 교육도 진행...학교:대학 대상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 3월부터 지역 및 학생 수 불문 찾아가...7월까지 35개교 출강 예정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공무원과 일반인까지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동포청은 9일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 밀집 거주 지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해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포청은 하반기 교육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를 7월 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핵심은 학생 수와 지역을 불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 200명이 넘는 학교부터 전교생 14명에 불과한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등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3월부터 5월까지 총 27개교를 대상으로 출강을 진행했다. 5월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3개 등 총 12개교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6월에는 4개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7월까지 총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3~5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추진 학교

- 대 학교(9): 동덕여대(3.28.), 인하대(4.8.), 대구가톨릭대(4.9., 4.22.), 전북대(4.18.), 광운대(4.30.), 경희대(5.12.), 덕성여대(5.12.), 한양대(5.22.)
- 고등학교(4): 충남인터넷고(3.24.), 천안여상(5.23.), 배화여고(5.27.), 울산외고(5.29.)



- 중 학교(5): 병곡중(4.7.), 신광중(4.11.), 일직중(4.11.), 셋별중(4.25.), 고흥점암중앙중(5.26.)

- 초등학교(9): 솔빛초(3.31.), 안정초(4.1.), 늘봄초(4.8.), 순천비봉초(4.25.), 전동초(5.9.), 미죽초(5.12.), 경산중앙초(5.16.), 서울용암초(5.21.), 인천공향초(5.28.)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에 대해 대상 학교와 교사들은 유익했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겪는 제도적·사회문화적 현실을 조망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재외동포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다양성과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공감도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상덕 청장은 "학생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를 더욱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부산 소재 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재외동포청-부산시, 10일 수출상담회 개최... 9일 한인비즈니스 포럼도 열어

동포기업인 및 해외 바이어 50여명, 138개 중소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재외동포 경제인 바이어 그룹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이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9일과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OK-BIZ 자문단과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8월 OK-BIZ 자문위원 180여명을 위촉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지난 2월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포함 전북자치도, 전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부산 수출상담회에는 OK-BIZ 자문위원과 부산시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0일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38개 업체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수출상담회는 앞서 9일 같은 장소에서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포럼으로 문을 열었다.

포럼과 수출상담회 개최식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광희 미래혁신부시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철환 차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 및 수출상담회가 국내기업과 동포기업들의 네트워크와 상생의 플랫폼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부산 소재 우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희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의 돌파구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인하대 이진영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부산연구원 장정재 책임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권도겸 본부장,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홍수연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인하대 이진영 교수는 글로벌 한상 경제권은 경제, 기술, 창의성으로 묶이는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중으로 한상과 부산지역 K-푸드, K-뷰티 기업 등의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과 부산시는 앞으로도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재명...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

빈민 지역 교회서 일궈낸 '청년 이재명'의 서사... 법률상담 봉사하며 인생 방향 정해



제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이쪽 성남주민교회 지하기도실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선거의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2일 성남주민교회에서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 이재명'은 이곳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자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 '대한이기자' 유튜브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선 대장정은 극적인 원형구조를 갖는다. 그의 후보 수락 연설은 '성남주민교회'라는 낯선 듯 낯익은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역시 그 교회를 다시 찾으며 마무리되었다. 단순한 시작과 끝의 반복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내러티브 완결이었다.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탁월했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성남주민교회는 한국 현대사 속의 중요한 자취를 남긴 교회다. 1970년대, 국가 폭력과 억압이 일상이던 시절, 성남이라는 도시 변두리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었다. 빈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거점이었다고, 교회 안에는 법률 상담소와 무료 진료소, 약국이 함께 있었다. 그곳은 믿음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조직하고,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했던 실험장이었다. '주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답게, 권위적이지 않은 공동체의 교회, '민중과 함께 걷는' 교회의 모델이었다.

이재명은 바로 이곳에서 청년 시절 법률상담 봉사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자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그가 성남주민교회를 선거 전략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원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유권자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왜곡되고 파괴되어 온 기독교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심각한 신뢰 위기 속에 있다. 수구 정치와의 결탁, 혐오 발언과 배타적 구조, 탐욕과 위선이 뒤섞인 채, 무저갱(無底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성남주민교회는 이 흐름과 전혀 다른 전통을 이어온 곳이다.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의 실천 현장이었고, 제도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교회였다. 이재명이 자신의 대선 서사를 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끝맺은 것은, 이 '다른 교회'의 계보에 정치적 가치를 실어준 행위였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진짜 대안의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전략적 복기였다.

대중 정치는 결국 이야기의 싸움이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가가 메시지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성남주민교회 서사는 무척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강력했다. 민중 속에서 태동한 정치인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그것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연결지었다. '사람을 위한 정치'라는 구호가 허공에 울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한국 유권자 모두가 성남주민교회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더욱 가치 있다. 거창한 무대나 화려한 수사 대신, 기억 속에 묻혀 있던 교회의 작은 현관문을 여는 방식으로 유권자 앞에 선 것이다. 이재명은 그렇게 한국 개신교의 어두운 그림자 너머, 한 줄기 빛을 꺼내 보였다. 정치가 신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잊혀진 공동체적 정의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이 전략은 단지 종교적 코드를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이야기 전략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선동가라 비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과거를 들춰내려 하지만, 정작 그는 한없이 평범하고 작은 교회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대로, 지금도 사람을 위합니다" 그것은 기획된 이미지였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결코 기획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울림이었다.

(김기대, <뉴스M> 논설위원) (출처: 동포저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스레텐스키 합창단은 창단 후 45개국 이상을 순회했으며 수천 명의 교회음악 애호가들 앞에서 공연을 해왔다. 예술 지휘자인 안드레이 폴토루힌은 "우리 합창단은 수도원에 있을 지라도 수도사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믿음과 공동의 활동에 연합한 전문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배와 공연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스레텐스키 수도원 합창단이 '로스네프티'와 공동으로 조성한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란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대조국전쟁 80주년을 맞아 곡목을 준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을 펼쳤다.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에는 전쟁, 조국, 애국심, 사랑에 대한 가슴 저미는 노래들로서 러시아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곡목들이 포함되었다. 전쟁시대의 불멸의 음악과 비극적인 시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절의 예술적인 기념비가 되었다.

스레텐스키 수도원 합창단의 노래는 러시아 노래 문화가 지닌 정신적인 전통을 결합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더하여 감성적인 울림을 증폭시켰다. 공연은 '스톨리차' 대강당에서 관객이 가득한 가운데 열렸다. 수백 명의 관객들 중에는 참전용사와 여러 세대의 조국수호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전쟁시기의 아이들이 있었다.

합창단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지울 수 없는 감동을 전해주었고, 감동의 노래들로 사할린 주민들은 강렬한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하여 전쟁시절의 위대한 음악을 감상했다. 러시아 국민에 대한 공동의 자부심으로 하나 되어 수백 명의 관객들은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눈물과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콘서트 Хора Срет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четверг, 5 июня,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Хора Срет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с про-

граммой, посвященной 80-й годовщин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Гастроли Хора проходят с марта, охватывают 24 города, и остров стал самой восточной точкой турне.

Хор Срет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можно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назвать уникальным явлением в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е. Твор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имеет свою самобытную манеру исполнения,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дарит зрителям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За свою историю Хор посетил более 45 стран, выступил перед тысячами ценителей церковной музыки.

«Коллектив не состоит из монахов, хотя мы Хор при монастыре, в нем выступ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нты, объединенные верой и общим делом. Мы совмещаем и богослуже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концерты», — отметил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дрей Полторух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р Срет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представил новый проект «Великой Победе посвящается», созданный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нефтью». Программа приурочена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тавшие частью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 пронзительные песни о войне, Родине, патриотизме, любви. Бессмертная музыка военной поры и трогательная поэзия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ими, н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памятниками минувших времен.

Исполнение Хора Срет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усилило их эмоциона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и добавило современное прочтение, объединив духовные традиции с песенной культурой России.

Концерт прошел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при полном аншлаге. Среди сотен зрителей было много ветеранов,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самых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етей войны.

Выступление хора произвело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публику.

Произведен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было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ым, что сахалинцы, не в силах сдержать эмоции, поднимались со своих мест и стоя встречал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композиции военных лет. Объединенные общей гордостью за народ нашей страны,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гостей пели вместе с Хором и не скрывали ни слез, ни восторга.

5월, 사할린에서 1만3천 톤 이상의 생선과 수산물 수출

2025년5월 한 달 동안 사할린에서 생선과 수산물 1만 3,300톤이 수출되었다.

사할린 지역의 수산물의 약 70%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러시아 농업감독청 산하 연해주 지역사무소에서 제공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 어류 및 농산물 안전센터' 연방 국가예산기관 사할린 지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05개의 생선제품류의 표준 및 모든 규정요건의 적합 판정을 실시했다. 사할린의 생선과 식품들은 중국(130종 - 9천 톤)과 한국(175종 - 4천300톤 이상)으로 수출되었고, 2025년 5월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냉동생선(동태, 대구, 청어, 광어, 임연수), 새우(북방새우, 벵새우), 명태알, 사료용 어분 등이다.

Более 13 тысяч тонн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экспортировали с Сахалина за май

За май 2025 года с Сахалина экспортировали 13,3 тысячи тонн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чти 70% даров моря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правили на экспорт в Китай.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ит Приморско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С 1 по 31 мая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ФГБУ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безопасности рыб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вел оценку соответствия требованиям всех регламентов и стандартов 305 партий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Основными экспортёр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рыбы и продуктов стали Китай (130 партий — 9 тысяч тонн), Южная Корея (175 партий — более 4,3 тысячи тонн)

Чаще всего на экспорт в мае 2025 года отправляли мороженную рыбу (минтай, треска, сельдь, палтус, терпуг), креветку (северная и гребенчатая), икру минтая, а также кормовую рыбную мук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7-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